

#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장 관 방\*\* · 김 영 미\*\*\*

## <국문요약>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부모로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학대적 양육은 이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 피학대 경험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검토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중학교 1학년 3차년도 자료 2,259사례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문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으로 검증했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학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또래애착수준이 낮았다. 둘째,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의 매개과정을 통해서도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격성 또한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낮은 반면,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공격성, 매개효과

---

\* 이 논문은 공동저자 장관방의 석사학위논문 수정보완함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졸업예정 (zhanggf@naver.com), 주저자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mgymk@deu.ac.kr), 교신저자

## I. 서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학대<sup>1)</sup>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단순히 개인의 양육방식 및 가정사로 여겨왔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방대책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어져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이 추가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고, 2014년 현재 전국에 총 5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2013)에서 발표한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2001년 2,01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총 10,943건으로 2011년에 비해 약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 판정사례와 신고건수의 점차적인 증가추세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점은 현재 신고된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2012년 기준으로 87%가 가정 내에서, 83.8%가 부모에 의해서 자녀에게 가해졌다는 사실이다. 가해자가 누구이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가해진 모든 학대행위가 이들의 성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학대적 양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인지적·정서적 발달에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수정·정익중, 2013).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자의식이 강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학대 행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그 부정적 결과들이 가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발달단계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부모 피학대 청소년들이 드러내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중 또래관계 위축 및 사회성 문제는 청소년기 현재의 적응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그 부정적 효

---

1)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과가 심각하게 지속될 수 있다. 또래집단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청소년기 발달의 중요한 맥락(context)이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얻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자아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역할과 자원을 탐색할 수 있다(정옥분, 2003).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는 청소년의 이러한 또래관계 능력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부모애착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타인에 대한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애정과 안정된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학습된다(Bowlby, 1988). 성장과정동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은 내면적으로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애착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공격적인 관계대응 방식만을 학습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부모의 학대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은 또래수용도와 사회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래집단에서 소외감과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재엽·최권호, 2012; 신유림, 2007; 우수정, 2013; 정익중, 2008).

사실상,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은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들을 이미 다양하게 검증했다(강주희 등, 2011; 김재엽·최권호, 2012; 남순현·임소영, 2006; 박은주·최말옥, 2014; 황은수·성영혜, 2006). 그렇다면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대가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매개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유용하다(이상균, 2007). 매개과정의 검증은 종속변수의 최종적 결과물이 나오기 전 일차적으로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때문에, 매개요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MacKinnon, 1994).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요인에 관심을 두고서, 매개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효과를 검증해보자 한다.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청소년의 긍정적 자기평가와 외현적 문제성향을 반영하는 변수들로서, 이론적으로도 부모학대 및 또래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데, 기존연구들은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 부모의 학대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애착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증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발달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들과(김수정·정익중, 2013; 안형숙, 2014; 장용환·송지혜, 2011) 또래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이 겪는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보고되었다(김혜금, 2014; 이은주, 2003). 그러나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연구, 특히 부모의 학대가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한 연구는 다소 제한되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 피학대 경험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은 부모 피학대의 부정적 영향으로 또래와의 애착형성과 사회적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방법을 다각도로 탐색하는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문헌고찰

### 1. 부모의 학대와 아동청소년발달 관련이론

#### 1) 부모애착이론

부모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은 아동학대 연구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이론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부모애착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 내부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모델을 형성하는데, 이 모델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적작용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한다(Bowlby, 1988).

Bowlby(1988)는 아동은 부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타

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갖게 된다고 했다. 즉 아동의 내적작동모델은 부모의 말과 행동,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잘 충족시켜주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하고 학대적 양육을 행한 경우, 아동은 초기 애착대상과의 불만족스러운 경험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모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Crittenden & Ainsworth, 1989).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정서적 강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균형적인 정서를 이룰 수 있으므로 타인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반면에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아동은 제한된 범위의 정서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강한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Kerr 등(2003)은 아동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청소년기 동안 친구를 선택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아동기부터 부모와 적절한 애착관계를 형성해온 청소년들은 온정적이고 균형적인 정서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자신감이 있고 갈등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 내적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균형적 정서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쉽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장휘숙, 2009). 따라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내면화했기 때문에, 이후 또래관계나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2)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인간의 발달은 사회적 환경에서 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개인의 행동은 강화와 모방에 의해 학습된다. 즉 개인은 사회환경 속에서 타인의 사고, 행동, 느낌을 모방하고 모델링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한다.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기본적인 행동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다. 따라서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의 행동과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공격성을 인간의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물

로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Bandura(1973)는 공격성의 학습경로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 방법과 타인의 공격적 행동을 관찰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한 학습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Bandura(1973)는 이러한 학습경로를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정의(definition),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이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했다(황성현·이강훈, 2013). ‘차별적 접촉’이란 학대와 공격적 행동을 하는 부모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의’는 특정 행위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규범적 의미와 태도이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학습한 학대적 행위와 태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적 강화’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해 기대되거나 실제로 나타나는 처벌과 보상간의 균형을 의미한다. 즉 공격적이고 폭력행위를 통해 긍정적 보상을 얻게 되거나 부정적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될 수 있다.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직접·간접적으로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성현·이강훈, 2013).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부모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을 자주 목격하면서 성장한 자녀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방한다. 부모의 학대와 폭력행위는 자녀에게 모델링과 강화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는 학대받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공격적이고 폭력적 행동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김재철·최지영, 2011). 또한 자녀는 부모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 학대와 폭력이 사람에게 허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공격적 태도나 폭력행동을 쉽게 드러내게 된다. 결국, 부모의 폭력과 학대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대인관계에서 공격적 태도나 폭력을 자신의 목적 성취의 방법으로 정의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학대나 비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오연희, 2012; 이아영·유서구, 2011; 정익중 외, 2006).

## 2.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또래애착

청소년기는 점차적으로 부모의 영향보다는 또래집단의 영향에 민감해지는 단계로써, 또래와의 경험은 이후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제공한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지적·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과 자원을 습득하고, 긍정적 자기인식 및 자아정체감 형성에 필요한 기회와 환경을 얻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은 긍정적 사회기술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유안진 등, 2002).

또래애착은 또래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로서, 또래 간의 신뢰감 및 친밀감, 감정과 사고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이다(Armsden & Greenberg, 1987). 그런데 부모의 학대 및 방임적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자기인식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반복적인 학대피해 경험은 인간의 인지체계 손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래집단에서 자신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어 친구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신유림, 2007). 구체적으로 국외연구들을 살펴보면, 피학대아동은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외되기 쉽고, 친구관계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학대를 겪은 아동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고 부정적인 행동경향이 높아서, 또래들과 친밀감 형성이 어렵고 갈등을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skett & Kistner, 1991; Kathryn & David, 2002; Parker & Herrera, 1996).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문재화(2009)는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행동 및 또래관계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행동과 위축을 증가시키고, 또래관계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특히 피학대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또래에게 무시나 거부를 당하는 일이 많고, 상호작용하는 친구 수가 적으며, 또래와 공격적으로 다투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했다. 우수정(2012)은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신뢰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또래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음을 분석했다. 즉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이거

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여 또래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 3.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이며 그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 평가로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강주희 등, 2014). 앞서 언급한 부모애착이론에 의하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자신을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한 자녀들은 정서적 결핍과 인지적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Crittenden & Ainsworth, 1989).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청소년은 자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정익중 외, 2006; 안형숙, 2014).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순현과 임소영(2006)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기 때부터 지속된 부모의 정서적·언어적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분석결과는 부모로부터 원망적인 언어를 빈번하게 들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정서적 학대와 자아존중감 사이에도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장용환과 송지혜(2011) 또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경험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자살생각 정도가 높다는 것을 검증했다.

한편,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폭력적 성향과 행동을 의미한다(이아영·유서구, 2011).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을 관찰하고 모델링하여 학습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모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과 부모의 폭력 관찰은 자녀의 공격성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김선숙, 2007; 김재엽 등, 2008).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선숙(2007)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신체적 공격성과 심리적 공격성 성향이 높음을 보고했고, 임소정(2003)은 아동기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과 집중력 장애, 친구관계 문제, 학교부적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검증했다. 또한 신혜영과 최해림(2003)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학대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대인관계 불안 수준이 높고, 특히 신체적 학대의 설명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4.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및 또래애착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건전한 성격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또래간의 애착형성에도 자신감이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스스로에 대해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또래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김재철 · 최지영, 2011).

김혜주(2012)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간의 유의한 정적관계를 검증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친밀도가 높았고,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라와 현온강(2008)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아동의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에서의 긍정적 기능과 만족감이 높고 또래간의 갈등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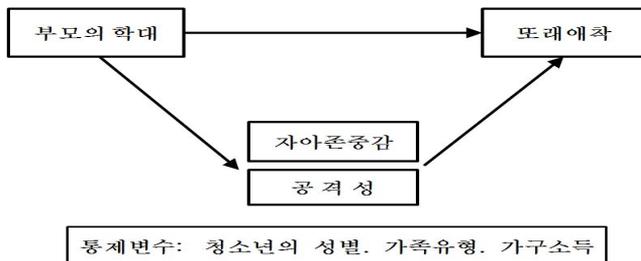
한편, 공격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공격적 행동이 가시적인 보상을 가져오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격적 행동으로 또래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피해와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다(Crick & Dodge, 1996).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적인 성향은 또래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유안진 등(2002)은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또래와의 갈등정도가 높고, 또래로부터 무시당하는 정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이은주(2003)는 아동의 공격성, 또래관계와 집단괴롭힘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아동의 공격성은 집단괴롭힘의 가해자 지명정도 및 또래거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은 또래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거부되는 경우가 심하며, 특히 또래사이에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성아와 최진아(2011)는 아동의 공격성이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요인인 갈등의 해결, 또래관계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인 요인인 갈등과 대립, 일방적주도, 철회·고립, 무시, 또래관계 불만족에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와 아동청소년발달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자녀학대이고 종속변수는 또래애착이다.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다. 즉, 부모의 자녀학대는 청소년의 또래애착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학대는 또래애착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과 관련이 있는 통제변수로 청소년의 성별과 가족유형, 가구소득을 투입하였다(김혜금, 2014; 문재화, 2009; 오연희, 2012).



<그림 1> 연구모형

##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의 중학교 1학년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중학교 1학년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전국 78개 중학교에서 각 1개 학급의 청소년들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1차년도에 총 2,351사례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중학교 1학년 3차년도 자료는 원표본 유지율 96.1%로써 총 2,259 사례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들 사례는 모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남자청소년이 50.5%(1,140명), 여자청소년이 49.5%(1,119명)이다.

## 3.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 부모의 학대

부모의 학대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재구성한 문항을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 문항은 총 8문항으로서 하위요인으로 방임과 학대가 각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대의 세부 문항으로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방임의 세부 문항으로는

‘부모님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을 측정하는 4문항은 결과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아동학대의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전체 8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이 .753이고, 하위요인인 방임의 Cronbach's  $\alpha$  값은 .758, 학대의 Cronbach's  $\alpha$  값은 .855로 나타났다.

## 2) 종속변수 :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된 황미경(2010)의 척도를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또래애착은 총 9문항으로서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가 각 3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또래애착의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의 Cronbach's  $\alpha$  값이 .797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의사소통의 Cronbach's  $\alpha$  값은 .823, 신뢰의 Cronbach's  $\alpha$  값은 .787, 소외의 Cronbach's  $\alpha$  값은 .765로 나타났다.

## 3) 매개변수

### (1) 공격성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공격성의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의 Cronbach's  $\alpha$  값은 .811로 나타났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의 자존감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자아존중감의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alpha$  값이 .8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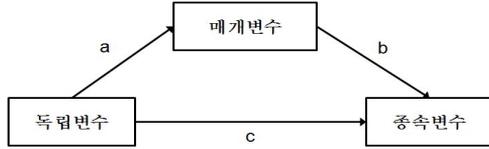
####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과 가족유형, 가구소득이다. 성별은 여자 '1', 남자 '0'의 더미 변수로 분석하였다. 가족유형은 두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4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모델에 추가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유의한지를 확인한다. 4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추가된 후,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사라지면 완전매개모델이 된다. 만약 매개변수가 추가된 후, 독립변수 회귀계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유의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부분매개모델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한 후, 매개효과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1982)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Sobel 검증에서 매개효과인  $ab$ 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s_a^2$ 는 경로  $a$ 의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s_b^2$ 는 경로  $b$ 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 청소년은 총 2,259명으로 모두 중학교 3학년이다. 이들 중 남학생은 50.5%(1,140명), 여학생은 49.5%(1,119명)였고, 가족유형은 두부모가정이 87.5%(1,947)이며, 그렇지 않은 가정이 12.5%(278명)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부의 경우, 고등학교졸업 40.8%(837명), 대학졸업 40.3%(828명), 전문대졸업 10.1%(208명), 대학원 졸업 5%(103명), 중학교 졸업 이하 3.8%(77명)순이었다. 또한 모의 경우는 고등학교졸업 54.3%(1,133명), 대학졸업 30.6%(27.2명), 전문대졸업 10.1%(211명), 중학교 졸업 이하 3.2%(66명), 대학원졸업 1.8%(37명)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가구의 평균 연간소득은 4,684.7만원이었다.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 중 왜도값과 첨도값은 자료의 정규성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제공해주는데,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미만일 경우 일반적으로 자료의 정규성이 인정된다(Kline, 2011).

<표 1>의 분석결과를 보면,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공격성, 자아존중감의 왜도값은 -0.04에서 0.27의 범위로, 첨도값은 -0.07에서 0.60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요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변수인 가구소득은 왜도값이 2.51, 첨도값이 17.94로서, 변수의 분포가 정규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가구소득 분포의 정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로그변환으로 처리하였다. 로그변환된 가구소득의 왜도값은 -0.71, 첨도값은 1.73로서 분포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의 학대	8	30	14.73	3.86	.27	-.57
또래애착	9	36	27.35	4.08	-.04	.60
공격성	6	24	13.22	3.60	.03	-.07
자아존중감	10	40	29.12	4.60	.23	.021
가구소득	0	40,000	4,684.66	2,719.06	2.51	17.94
log_가구소득	4.61	10.60	8.30	.59	-.71	1.73

N=2,251

### 3.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1 부모의 학대	1				
2 또래애착	-.407***	1			
3 공격성	.335***	-.263***	1		
4 자아존중감	-.391***	.442***	-.347***	1	
5 log_가구소득	-.071**	.097***	-.057**	.087***	1

\*\*  $p < .01$ , \*\*\*  $p < .001$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r = -.407$ ,  $p < .01$ ),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r = .335$ ,  $p < .01$ ), 부모의 학대와 자아존중감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391$ ,  $p < .01$ ).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정도는 감소하고, 공격성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관계와 공격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r = -.263$ ,  $p < .01$ ),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442$ ,  $p < .01$ ). 즉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통제변수인 log가구소득은 부모의 학대( $r = -.071$ ,  $p < .01$ )와 공격성( $r = -.057$ ,  $p < .01$ )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또래애착( $r = .097$ ,  $p < .01$ )과 자아존중감( $r = .087$ ,  $p < .01$ )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수준은 증가하는 반면,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 수준은 감소함을 보여준다.

#### 4.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Baron과 Kenny(1988)의 4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성별과 가족유형, 가족소득이 통제되었다.

<표 3>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수	B	S.E.	$\beta$	$R^2$	F
1단계 (독립→종속)	부모의 학대→또래애착	-.413	.021	-.390***	.175***	113.510 ***
2단계 (독립→매개)	부모의 학대→자아존중감	-.472	.024	-.395***	.162***	103.466 ***
3단계 (매개→종속)	자아존중감→또래애착	.394	.017	.445***	.222***	152.908 ***
4단계 (매개변수 통제)	부모의 학대→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통제)	-.270	.021	-.255***	.276***	163.086 ***

주 : 1~4단계에서 청소년의 성별, 가족유형, log\_가구소득이 통제되었음.

\*\*\*  $p < .001$

<표 3>에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대는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90, p < .001$ ). 즉, 부모의 피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또래애착수준은 감소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대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부모의 학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들은 부모 피학대경험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beta = -.395, p < .001$ ).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 = .445, p < .001$ ). 4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부모의 학대는 자아존중감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또래애착에 대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 = -.255, p < .001$ ). 4단계의 분석결과를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1단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4단계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미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4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감소함을 알 수 있다(1단계  $\beta = -.390, p < .001 \rightarrow$  4단계  $\beta = -.255, p < .001$ ).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5.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 검증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도 Baron과 Kenny의 4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분석단계에서도 청소년의 성별과 가족유형, 가구소득을 모두 통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단계에서 부모의 학대는 또래애착에 유의미하는 부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beta = -.390, p < .001$ ).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대가 매개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 = .334, p < .001$ ). 즉 부모의 학대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격성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공격성은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beta = -.263, p < .001$ ), 공격성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 정도가 감소했다.

<표 4>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변수	B	S.E.	$\beta$	$R^2$	F
1단계 (독립→종속)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413	.021	-.390***	.175***	113.510***
2단계 (독립→매개)	부모의 학대 →공격성	.310	.019	.334***	.114***	68.823***
3단계 (매개→종속)	공격성 →또래애착	-.229	.023	-.263***	.095***	56.123***
4단계 (매개변수통제)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공격성 통제)	-.360	.022	-.340***	.195***	103.890***

주 : 1~4단계에서 청소년의 성별, 가족유형, log\_가구소득이 통제되었음.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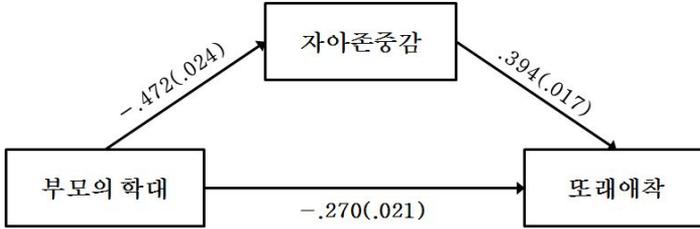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격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또래애착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40, p < .001$ ). 4단계의 분석결과를 1단계와 비교해보면,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효과는 공격성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4단계에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1단계  $\beta = -.390, p < .001 \rightarrow$  4단계  $\beta = -.340, p < .001$ ). 이 결과는 공격성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6.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앞서 Baron과 Kenny의 4단계 분석방법을 통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 각각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의 공식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s_a^2$ 은 독립변수→매개변수 경로의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s_b^2$ 은 매개변수→종속변수 경로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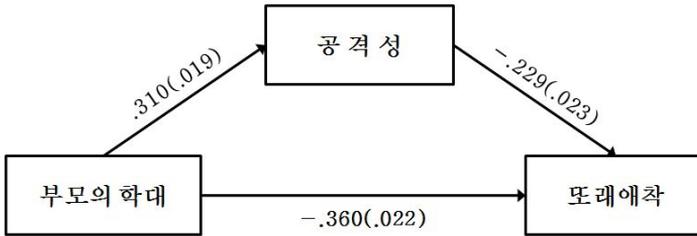
먼저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이 모형의 경우, Sobel 수식을 통해 얻은 Z값은 -14.99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즉 부모의 학대는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이 매개효과는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임

<그림 2> 자아존중감의 매개모형

다음으로 <그림 3>은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모형이다. 동일하게 Sobel 수식을 통해 얻은 Z값은 -8.49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 < .01$ ). 이 결과는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이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임

<그림 3> 공격성의 매개모형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 피학대 경험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검토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중학교 1학년 3차년도 자료 2,259사례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실시된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은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 수준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정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 결과는 가구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일 경우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학대수준이 높고,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청소년들이 부모의 학대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또래애착의 수준이 감소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이론에 대한 장휘숙(2009)과 문재화(2009)의 설명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자녀가 부모의 학대적 양육방식으로 인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균형적 정서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피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검증한 김소영(2009)의 연구결과와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가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우수정(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는 자아존중감의 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부모로부터 일상적으로 학대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신감과 신뢰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정의중 외, 2006; 안형숙, 2014). 즉,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인식을 손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이 손상된 이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상호작용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남순현과 임소영(2006), 장용환과 송지혜(2011)는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또한 김혜주(2012)와 배영옥(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또래와의 갈등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의 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공격성 또한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사회학습이론의 설명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부모의 반복적인 학대와 폭력행위는 자녀에게 모델링과 강화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는 공격적 행동을 두려워하면서도 학습하고 모방하게 된다(김재철·최지영, 2011; 이아영·유서구, 2011). 즉, 자녀는 부모의 학대적 태도와 폭력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공격성을 학습하게 되고, 공격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적 성향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또래수용정도가 낮고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검증한 김성아(2011), 최진아와 이은주(2003)의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실제적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면서,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재차 확인했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직접적 경로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통한 매개경로를 설정했는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후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 부모의 학대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력한 이론적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확인은 부모의 학대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고 감소시키는데 실제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손상되거나 공격적 성향이 강화되어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또래로부터 배제되거나 갈등을 자주 겪는 청소년일수록 학교부적응이나 학교폭력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관계 문제로 인해 학교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또래관계나 학교부적응 문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와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 공격성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포괄적인 사정결과를 토대로 피학대 청소년의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고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부모의 학대적 양육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또래관계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상,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성장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예방책은 부모의 애정과 긍정적 양육방식이다(장휘숙, 2009).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절대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스스로 자녀를 얼마나 정서적으로 학대 혹은 방임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들의 학대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자아개념이나 공격적 태도, 대인관계형성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기초분석결과는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대수준은 높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정도는 낮으며 공격성 수준은 높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의 경우,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부모가 생계문제로 인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고 자녀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의 부모들이 겪고 있는 자녀양

육 문제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가족 관련 기관에서는 부모들의 자조집단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사춘기 특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방식, 자녀의 진로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동학대 인식교육 대상이 주로 아동 본인이나 보건의료 및 보육기관 종사자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결과와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보육기관, 유치원, 학교 단위에서 다수의 부모들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웹기반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부모들이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방해를 받지 않고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주희·박지혜·전종설. 2011. “피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1: 121-140
- 김선숙. 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65-95
- 김성아·최진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 및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5-1: 17-28
- 김소영(2010). 『청소년의 학대경험, 갈등해결전략 및 의사소통능력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재엽·이지현·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회』. 26: 31-59
- 김재엽·최권호. 2012. “중복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재철·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평화·윤혜미. 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39
- 김혜금.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2-1: 11-19
- 김혜주. 2012. 『청소년의 신체상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숙·정익중.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35-49
- 남순현·임소영. 2006.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53-967

- 박은주·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보건복지부. 2013.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신유림. 2007.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과 외현적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25-1: 77-85
- 신혜영·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상담및심리치료학회지』. 15-2: 295-307
-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l391.org](http://www.koreal391.org)
- 안형숙. 2014.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185-203
- 오연희. 2012. “피학대경험이 아동의 비행과 또래관계 소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실천』. 11: 95-117
- 우수정. 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6: 583-590
- 유안진·김진경·한유진.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이상균. 2007. “사회복지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2: 19-36
- 이아영·유서구. 2011. “부부간 폭력의 노출정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패널자료(KYPS)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25-245
- 이은주. 2003. “아동의 공격성, 또래관계 및 집단 괴롭힘의 안정성.” 『초등교육연구』. 16-2: 283-300
- 장용환·송지혜. 2011.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2: 80-104
- 장휘숙. 2009. 『청년심리학』. 박영사
- 정옥분. 2003.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익중·박현선·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조아라·현온강. 2008.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1-1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3차 조사 데이터 코드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 심리학』. 교육과학사
- 황성현·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3-3: 127-14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Crick, N. R., & Dodge, K. A.. 1996.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3-102.
- Crittenden, P. M. & Ainsworth, M. D. S.. 1989. “Child maltreatment and attachment theory”,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432-463. New York: Holt, Reinhardt & Winston
- Dube, S. R., Anda, R. F., Felitti, V. J., Chapman, D. P., Williamson, D. F., &

- Giles, W. H.. 2001. "Childhood abuse, household dysfunction and the risk of attempted suicide throughout life span: Findings from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6: 3089-3096
-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Koss, M. P.,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 245-258
- Heffernan, K., Cloitre, M., Tardiff, K., Marzuk, P. M., Portera, L., & Leon, A. C.. 2000. "Childhood trauma as a correlate of lifetime opiate use in psychiatric patients." *Addictive Behaviors* 25: 797-803
- Kerr, M., Stattin, H., Biasecker, G., & Ferrer-Wreder, L.(2003).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ce. In I. B. Weinder, R. M. Lerner, M. A. Easterbrook, & J. Mystery(Eds.). *Handbook of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395-419. John Wiley & Sons. Inc.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MacKinnon, D. P.. 1994. "Analysis of mediating variables i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research", In A. Cazares & L. A. Beatty (Eds.). *Scientific method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research*(NIDA research monograph 139, DHHS Pub. No. 94-3631).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Abstract>**

**Influence of Parental Child Abuse on Peer Attachment  
among Adolesc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Aggression**

Zhang, Guanfang · Kim, Youngm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eui University

Since parents are a crucial support system for adolescents, parental child abuse has significant influences o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al child abuse on adolescent peer attachment. Addition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aggression between parental child abuse and adolescent peer attachment. A total of 2,259 adolescent data from third wave of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tudy was used in this study. Research questions were examined through the mediator analysis method of Baron and Kenn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also performed Sobel test to ident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o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child abuse had a direct influence on adolescent peer attachment. That is, higher levels of parental child abuse were related to lower levels of peer attachment. Second, parental child abuse affected indirectly adolescent peer attachment through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Third, parental child abuse also had indirect influence on adolescent peer attachment through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ed that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agg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annual family income affected inversely parental child abuse and aggression. However, the results indicated the higher level of family income was related

to the higher degree of adolescent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vention on the levels of school setting and community family agency.

**Key words** : parental child abuse, peer attachment, self-esteem, aggression, mediating effect

---

장관방 :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취득예정이며(2015년 2월),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중국 농촌 유수아동(留守兒童), 아동학대, 조손가정 아동양육 등이다.

E-mail: zhanggf@naver.com

김영미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약물중독, 청소년 사회자본 등이며, 주요연구구로는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능감과 부모유대가 또래괴롭힘 피해자 방어 역할에 미치는 영향”(청소년복지연구, 2014, 공동연구),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이웃사회자본의 조절효과”(청소년학연구, 2013) 등이 있다.

E-mail: mgymk@deu.ac.kr